

〈일반논문〉

10세기 전반 渤海와 契丹의 군사력 비교 검토*

문 윤 수 **

〈목차〉

- I. 머리말
- II. 10세기 전반 渤海·契丹의 전쟁과 군사 편제
- III. 大諲譔 시기 渤海의 군사력
- IV. 太祖 耶律阿保機 시기 契丹의 군사력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0세기 전반 渤海와 契丹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전쟁 당시 양국의 군사력이 어떠한지 추적해보았다. 10세기 전반 거란은 증원으로의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증원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았던 발해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발해의 군사 편제는 중앙군 10衛, 左·右三軍, 左·右神策軍과 각 府·州 등에 배치되어 있던 지방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발해는 이와 같은 군사 편제를 기반으로 하여 10세기 전반 거란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리고 거란의 군사는 御將親軍, 斡魯朶軍, 大首領部族軍, 衆部族軍 등으로 구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10세기 渤海와 契丹의 戰爭 研究」 '제2장 10세기 渤海·契丹의 20여 년 전쟁과 군사력'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문윤수, 「10세기 渤海와 契丹의 戰爭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8~31쪽).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박사과정

성된 중앙군과 부족군, 五京鄉兵, 邊境守兵으로 구성된 지방군 그리고 전쟁 시 거란이 屬國들에게서 군사를 차출하여 구성된 屬國軍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외에 諸民族들로 구성된 紂軍이라는 군사 집단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란 태조는 발해와 전쟁을 벌일 때는 騎軍의 이장친군과 친위부대 알로타군을 주력으로 편성했을 것이고, 여기에 遙輦氏 규군도 이 전쟁에 참전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10세기 전반 발해와 거란 兩國의 군사력은 대략 3만 5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遼史』와 『高麗史』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이들의 군사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발해는 약 13만 5천 4백 명, 거란은 약 17만 1천 명 정도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당시 이들의 군사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10세기 전반 발해와 거란 양국은 이처럼 체계적인 군사 편제를 바탕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을 벌인 것이었다. 특히, 이들의 전쟁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벌어졌던 것도 양국의 군사력이 비교적 대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발해, 거란, 군사 편제, 중앙군, 지방군, 군사력

I. 머리말

渤海와 契丹은 7세기 후반 발해 건국기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후 兩國은 우호와 대립을 반복하다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10세기에 이르러서는 결국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었다.¹⁾

1) 문운수,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

10세기 발해와 거란의 전쟁 연구는 양국의 遼東, 扶餘府 전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최근에는 거란이 요동 이외에 발해의 鴨綠府를 공격했음은 물론,³⁾ 발해의 鐵利府와 東平府도 공격하여 이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음을 밝히려는 연구성과⁴⁾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세기 당시 발해와 거란 양국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⁵⁾

군사력은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⁶⁾ 군사력이 대등하면 군사전략, 전술 등이 뛰어난 쪽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현격한 군사력의 차이를 보인다면 아무리 전투 경험이 많고

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05, 2022.

- 2) 김은국, 「渤海滅亡의 原因」, 『高句麗渤海研究』 6, 1999; 나영남, 『요·금시대 이민족 지배와 발해인』, 2017, 53~55쪽;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해안, 2007, 60~62쪽; 임상선,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2輯, 2008, 157~159쪽; 韓圭哲, 「渤海와 遊牧王朝의 交流」, 『高句麗渤海研究』 34輯, 2009, 30~33쪽; 권은주, 「渤海와 契丹 境界의 시론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第54輯, 2016, 146~151쪽; 강성봉, 「발해(渤海)-거란(契丹)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韓國史研究』 193, 2021, 52~71쪽; 문운수,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2022, 294~299·302~303쪽.
- 3) 권은주, 「渤海와 契丹 境界의 시론적 검토」, 2016, 146~151쪽; 강성봉, 「발해(渤海)-거란(契丹)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2021, 59~64쪽; 문운수,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2022, 299~301쪽.
- 4) 문운수,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2022, 284~293쪽.
- 5) 다만, 거란(요)의 군사력 및 전술과 관련한 연구성과는 보이고 있다(전병우, 「遼의 군사제도와 전술」, 『軍史』 第113號, 2019; 윤영인,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정복왕조” 거란의 군사력」, 『東洋古典研究』 第85輯, 2021 참조). 특히, 윤영인은 10세기 거란(요)의 군사력은 30만 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고, 이중에서 기군은 10만 명 그리고 기군 중에서도 정예 기병이었던 皮室軍과 屬珊軍의 군사 수는 『契丹國志』의 기록에 따라 피실군 3만 명, 속산군 2만 명으로 보기도 했다(윤영인,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정복왕조” 거란의 군사력」, 2021, 227~228쪽).
- 6) 여기서의 군사력은 군사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병력을 일컫는 것임을 밝혀둔다.

전략이 뛰어날지라도 병력의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투기, 미사일, 핵무기 등 현대 최신식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곧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10세기 전반 발해와 거란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당시 발해와 거란 양국의 전쟁 과정을 조금 더 세밀히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0세기 전반 발해와 거란의 군사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高麗史』, 『遼史』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0세기 전반 거란이 발해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이들 양국의 군사 편제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고려사』와 『요사』 등에 나타나는 발해 유민 관련 기록들을 통해 발해의 군사력을 파악해볼 것이고, 또 『요사』 등에 나타나고 있는 거란의 군사와 관련된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太祖 시기 거란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파악해볼 것이다.

II. 10세기 전반 渤海·契丹의 전쟁과 군사 편제

10세기 국제정세가 급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해는 後梁, 後唐 등 중원왕조와 우호 관계를 형성⁷⁾ 하여 북방의 강자로 성장한 거란을 견제해

7) 발해의 마지막 왕 大諲譔은 후량, 후당 등에 자신의 친족들을 사신으로 파견할 정도로, 10세기 발해와 중원왕조는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冊府元龜』 권972, 外臣部 朝貢5 梁 太祖 開平 원년; 『冊府元龜』 권972, 外臣部 朝貢5 梁 太祖 乾化 2년; 『冊府元龜』 권972, 外臣部 朝貢5 唐 莊宗 同光 2년; 『冊府元龜』 권976, 外臣部 褒裏3 唐 同光 2년 참조).

나갔다. 또한 발해는 당시 사이가 좋지 않던 新羅와 동맹을 맺으려 하기도 했다.⁸⁾ 이러한 행동은 모두 거란을 견제하기 위한 발해의 외교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란은 그 근원이 鮮卑族의 일파로,⁹⁾ 발해와는 풍속이 비슷했고¹⁰⁾ 더욱이 7세기 후반 발해 건국 시기부터 발해건국집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집단¹¹⁾이다. 이들은 우호와 대립을 반복하다가 9세기 후반 거란의 耶律阿保機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어갔다.¹²⁾ 그것은 야율아보기가 부족을 통합하고 세력 확장을 위해 정벌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거란왕조¹³⁾를 건국할 정도로 거란이 북방의 강자로 크게

8)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118~120쪽;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2007, 40~48쪽.

9) 이와 관련해서는 李在成, 「第Ⅱ章 種族系統과 居住地에 대한 재검토」,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史, 1996, 51~72쪽; 金渭顯, 『契丹東方經略史研究』,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5~15쪽 참조.

10) 『舊唐書』 권199 列傳149 北狄 渤海靺鞨, “風俗與高麗及契丹同”.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餘俗與高麗契丹略等”.

11) 임상선,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2008, 147~152쪽.

12) 임상선,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2008, 152~160쪽.

13) 야율아보기는 10세기 초 거란(요) 왕조를 수립했는데, 야율아보기의 稱帝 시기를 『요사』에서는 907년, 『거란국지』에서는 916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916년 야율아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일하고, 神冊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점과 황제의 존호를 처음 사용했던 점을 보면 야율아보기의 칭제 시기는 916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거란(요) 왕조의 온전한 수립 시기는 야율아보기가 부족을 통일한 916년으로 보는게 타당하다(『遼史』 권1 本紀1 太祖 上 참조). 또한 거란(요) 왕조는 태조~태종(916~937) 大契丹, 태종~경종(938~982) 大遼 大契丹, 성종~흥종(983~1065) 大契丹, 도종~천조제(1066~1125) 大遼 순서로 그 국호가 여러 차례 변화하기도 했다(劉浦江, 「遼朝國號考釋」, 『歷史研究』, 2001 6期). 더욱이 최근에는 契丹文字의 분석을 통해 거란(요) 왕조는 大[中央]遼契丹國 혹은 大[中央]契丹遼國이라는 뜻을 가진 거란어 국호와 大契丹, 大遼라는 漢字 국호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연구 성과도 보이고 있다(류병재, 「거란문자 분석을 통한 거란(契丹) 국명(國名) 연구」, 『白山學報』 119, 2021).

성장했기 때문이다.

거란 태조 야율아보기의 최종목표는 중원으로의 진출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원진출에 있어 위협이 되는 서쪽 세력과 동쪽의 발해를 정벌해야만 했다. 그중에서 발해는 중원과 연대하여 거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리하여 거란 태조는 이러한 발해를 정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 전쟁은 거란 측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 [天祚帝] 天慶 6년(1116) 東京은 옛날 발해의 땅으로, 太祖께서 20여 년을 힘껏 싸워 차지한 곳이다.¹⁴⁾

A-2 [天祚帝] 天慶 6년(1116) 東京은 옛날 발해의 땅인데, [耶律]阿保機가 힘껏 싸우기 20여 년 만에 비로소 그것을 얻어 동경으로 삼았다.¹⁵⁾

A 자료는 10세기 양국이 요동을 중심으로 하여 20여 년간 전쟁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란 측 자료이다.¹⁶⁾ 이는 거란 태조가 발해의 최전방 요충지인 부여부를 압박하고 중원과 연대를 차단시키기 위해 요동을 중심으로 공격해 들어가 전쟁을 벌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거란은 요동뿐 아니라, 鄭頡府와 鴨綠府를 공격하여 부여부로의 군사 지원

14) 『遼史』 권28 本紀 第28 天祚皇帝, “天慶六年(1116), 東京故渤海地, 太祖力戰二十餘年乃得之.”

15) 『契丹國志』 권6 天祚皇上, “天慶六年(1116), 東京乃渤海故地, 自阿保機力戰二十餘年始得之, 建爲東京.”

16) 『요사』와 『거란국지』 이외에 『遼東行部志』에도 발해와 거란이 요동의 땅을 두고 수십여년 간 전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王寂, 『遼東行部志』, “唐季不能勤遠略, 遼東之地爲渤海大氏所有傳國十餘世, 唐五代時契丹與渤海血戰數十年, 竟滅其國, 于始遼東之地, 盡入于遼.”).

을 차단시키고, 또 발해의 수도 上京을 고립시키기 위해 상경 북쪽의 철리부와 동북쪽의 동평부를 공략하기도 했는데, 이는 거란이 발해의 부여부분 아니라 수도 상경도 고립시켜버리는 군사전략을 펼치며 전쟁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국의 전쟁은 요동을 비롯해 철리부, 동평부, 압록부, 부여부 그리고 수도 상경 등 발해의 여러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전투가 벌어졌고, 또한 발해의 扶餘城과 상경 忽汗城은 부여부와 상경을 고립시켜버리는 거란의 군사전략으로 인해 빠르게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¹⁷⁾

이처럼 발해와 거란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양국의 군사적 능력이 나름 대등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시 발해와 거란 양국의 군사 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발해의 군사 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해의 군사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의 부족으로 잘 알 수 없지만, 『舊·新唐書』의 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B-1 武員으로는 左·右猛賁衛, 左·右熊衛, 左·右羆衛, 南左·右衛, 北左·右衛가 있고, 각각 大將軍 1명과 將軍 1명씩을 둔다. (하략)¹⁸⁾

B-2 太和 6년(832) 12월 무진일, 內養 王宗禹가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발해가 左·右神策軍, 左·右三軍, 120司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쳤다.¹⁹⁾

17) 이러한 발해·거란의 구체적인 전쟁 과정과 거란의 군사전략에 대해서는 문윤수,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2022 참조.

18)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其武員有左右猛賁·熊衛·羆衛, 南左右衛, 北左右衛, 各大將軍一, 將軍一.”.

19) 『舊唐書』 권17 本紀27 文宗 下, “太和六年(832) 十二月 戊辰, 內養王宗禹渤海使迴, 言渤海置左右神策軍·左右三軍·一百二十司, 畫圖以進.”.

B-3 땅은 사방 5천 리이고, 戶口는 10여 만, 勝兵은 수만 명이다. 書契를 제법 안다. 扶餘·沃沮·弁韓·朝鮮 등 바다 북쪽에 있던 諸國의 땅을 대부분 다 차지했다.²⁰⁾

B-4 그 땅은 營州 동쪽 2천 리 밖에 있고, 남쪽은 신라와 접하고 있다. 越喜靺鞨에서 동북으로는 黑水靺鞨에 이른다. 사방이 2천 리이고, 編戶는 10여 만, 勝兵은 수만 명이다. 風俗은 고[구]려, 거란과 같고, 文字 및 典籍도 상당히 있다.²¹⁾

B-5 扶餘故地에 설치한 扶餘府는 항상 勁兵을 주둔시켜 거란을 방어하고, 扶州·仙州의 2州를 통치한다.²²⁾

B 자료는 발해의 군사 조직과 관련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B-1은 발해의 군사 조직이 10衛(또는 8衛)²³⁾로 편제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20) 『新唐書』 권219 列傳 144 北狄 渤海, “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弁韓·朝鮮海北諸國.”

21) 『舊唐書』 권199 列傳149 北狄 渤海靺鞨, “其地在營州之東二千里, 南與新羅相接. 越喜靺鞨東北至黑水靺鞨, 地方二千里, 編戶十餘萬, 勝兵數萬人. 風俗與高麗及契丹同, 頗有文字及書記.”

22)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扶餘故地爲扶餘府, 常屯勁兵扞契丹, 領仙二州”.

23) 발해의 군사 조직에 대해서는 『신당서』 발해전의 해석에 따라 10위제 또는 8위제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 10위제 설은 남좌·우위와 북좌·우위가 좌위와 우위로 독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金毓黻 저, 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지장편』 中職官考, 신서원, 2008, 385~388쪽; 鳥山喜一 著, 般木勝馬 編,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82~83쪽; 박시형, 『발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131~134쪽; 왕승례 저, 송기호 역,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103~107쪽; 韓圭哲, 『한국사』 10 발해, 국사편찬위원회, 150~151쪽 참조), 8위제 설은 남좌우위, 북좌우위의 좌우를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I-古代編』, 一潮閣, 1982, 357~358쪽; 주보돈,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 한길사, 1994, 356쪽; 강성봉, 「발해 8위제에 대한 검토」, 『軍史』 79, 2011 등 참조). 그러나 여기서

러나 이들 10위의 역할은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唐의 각 ‘衛’와 ‘軍’을 비교하여 발해 10위의 역할을 추론한 金毓黻의 연구를 참고해서 본다면, 발해 左·右猛賁衛는 궁궐속위, 左·右熊衛와 左·右羆衛는 都城 방어, 南左·右衛와 北左·右衛는 임금의 직속 친위부대인 禁軍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겠다.²⁴⁾ 그리고 발해에는 10위 이외에 B-2의 당 王宗禹가 언급한 左·右三軍과 左·右神策軍²⁵⁾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²⁶⁾ 따라서 발해의 중앙군은 10위와 좌·우삼군, 좌·우신책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926년 1월 거란군의 공격으로 격파당한 상경 흘한성을 지키던 3만의 발해군²⁷⁾이 바로 이들 중앙군이 아니었을까 한다.

는 남좌·우위와 북좌·우위도 다른 ‘衛’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좌·우를 독립 조직으로 이해하는게 옳다고 판단되어 10위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 24) 金毓黻 저, 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지장편』 中 職官考, 2008, 385~388쪽.
- 25) 左·右神策軍은 당의 군사조직으로, 玄宗 天寶 13년(751) 隴西節度使 哥舒翰이 臨洮 서쪽 馬環川에 설치한 지방군대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신책군은 安·史의 난으로 인해 陝州로 옮겨졌으며, 肅宗代에는 魚朝恩이 이들 陝州의 신책군을 통솔하였다. 그리고 代宗 永泰元年(765)에 吐蕃이 당을 침략하자, 이들 신책군은 궁궐 안의 禁苑에 주둔하게 되면서 비로소 禁軍이 되었다고 한다(崔宰榮, 『唐後期神策軍과 長安의 治安 機能』, 『中國學報』 63, 2011, 172쪽 재인용).
- 26) 김진광은 발해가 당의 군사제도를 모방하여 10위 이외에 左·右神策軍과 左·右三軍이 있던 것으로 보았다(김진광,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2012, 143~144쪽). 반면, 강성봉은 발해에 좌·우신책군과 좌·우삼군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좌·우삼군은 좌·우맹분위, 비위, 응위로, 좌우신책군은 북좌우위, 남좌우위로 보아, 발해의 10위제를 8위제로 이해하고 있다(강성봉, 『발해 8위제에 대한 검토』, 2011, 220~222쪽).
- 27) 『遼史』 권2 本紀2 太祖 下, “天顯元年(926) 春正月 丙寅, 命陽隱女端, 前北部宰相蕭阿古只等將萬騎爲先鋒遇譚老相兵, 破之. 皇太子, 大元帥堯骨, 南府宰相蘇, 北院夷離董斜涅赤 南院夷離董迭里, 是夜圍忽汗城. 己巳日, 譚讓請降.” 『遼史』 권73 列傳3 蕭阿古只, “阿古只, 字撒本. … 功渤海, 破扶餘城, 獨將騎兵五百, 敗老相軍三萬.”

이외에도 발해는 행정구역이 5京 15府 62州로 구성²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할 지역마다 地方軍이 존재했을 것이 분명하다.²⁹⁾ 그러나 발해 지방군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발해가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 부여부에 勁兵을 두었다는 점(자료 B-5), 10세기 전반 전쟁 당시 발해와 거란이 요동을 중심으로 20년 넘게 전투를 치른 점³⁰⁾, 925년 거란이 발해의 西京 鴨綠府 神州 등을 공격하여 전투를 치른 점³¹⁾, 926년 압록부의 遊騎 7천 군사가 거란에 맞서 싸운 점³²⁾, 발해의 鐵州 刺史 衛鈞이 거란과 싸운 점³³⁾ 등을 보면, 이는 발해가 각기 관할 지역들마다 지방군을 배치해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⁴⁾ 또한 739~740년 발해의 忠武將軍 胥要德이 若忽州都督을 역임

-
- 28) 『新唐書』 권219 列傳144 渤海, “初, 其王數遣諸生詣京師太學, 習識古今制度, 至是遂爲海東盛國, 地有五京十五府六十二州.”
- 29) 발해의 지방통치와 관련해서는 金東宇, 「渤海的 地方統治體制 운영과 그 변화」, 『韓國史學報』 제24호, 2006; 金東宇, 「발해 도성과 지방통치」, 『高句麗渤海研究』 第58輯, 2017 참조.
- 30) 『遼史』 권28 本紀 第28 天祚皇帝 天慶 6년; 『契丹國志』 卷6 天祚皇上 天慶 6년; 王寂, 『遼東行部志』.
- 31) 『陳萬墓誌』, “年卅五(923), 從皇帝東(伐)渤海國, 當年收下. 年卅七(925), 又從嗣聖皇帝伐神·歡二州, 當年又下, … 年七十七(955), 應曆五年(955) 六月 七日薨, 權立在堂, 至當年十月九日, 大葬於豪州西南, 禮也.”(王晶辰 主編, 『遼寧碑誌』, 遼寧人民出版社, 2002, 330쪽; 周阿根 校注, 『遼代墓誌校注』 上, 天津古籍出版社, 2022, 10쪽); 권은주, 「渤海와 契丹 境界의 시론적 검토」, 2016, 150~151쪽.
- 32) 『遼史』 권73 列傳3 蕭阿古只, “阿古只, 字撒本. … 渤海既平, 改東丹國. 頃之, 已降郡縣復叛, 盜賊蜂起. 阿古只與康墨記討之, 所向披靡. 會賊遊騎七千自鴨綠府來援勢張甚. 阿古只帥麾下精銳, 直犯其鋒, 一戰克之斬馘三千餘, 遂進軍破回跋城.”
- 33) 『遼史』 권2 本紀2 太祖 下, “[天顯元年(926)]秋七月 丙辰, 鐵州刺史衛鈞反. 乙丑, 堯骨攻拔鐵州.”
- 34) 김진광 역시 扶餘府 勁兵과 鴨綠府 遊騎 7천 軍 등의 내용을 토대로 발해에는 각 府마다 地方軍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다(김진광,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2012, 139~140쪽).

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³⁵⁾ 이는 발해가 若忽州에 군사를 배치하고 都督을 두어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758~759년에는 발해의 輔國大將軍兼將軍 楊承慶과 高南申이 木底州刺史와 玄菟州刺史를 역임했다는 내용³⁶⁾도 보이는데, 이것 역시 발해가 요동의 木底州, 玄菟州³⁷⁾에 군사를 배치하고 刺史를 두어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발해는 관할 지역들마다 각기 지방군을 배치해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발해의 군사 편제는 10위, 좌·우삼군, 좌·우신책군으로 구성된 중앙군과 부여부 勁兵 등의 지방군으로 편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해는 이러한 군사 편제를 바탕으로 하여 10세기에 벌어졌던 거란과의 전쟁에 임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5)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十一年(739)十二月 戊辰, 渤海使己珍蒙等拜朝. 上其王啓并方物, 其詞曰, 「欽茂啓, 山河杳絕, 國土曷遙. … 仍差若忽州都督胥要德等充使, 領廣業等令送彼國. 并附大蟲皮羆皮各七張, 豹皮六張, 人參三十斤, 蜜三斛進上, 至彼請檢領.」… 十二年(740)春正月 丙辰, 遣使就客館, 贈渤海大使忠武將軍胥要德從二位, 首領無位己關棄蒙從五位下. 并賻調布一百十五端, 庸布六十段.”.

36) 『續日本紀』 권21 淳仁天皇, “天平寶字二年(758)九月 丁亥, 小野朝臣田守等至自渤海, 渤海大使輔國大將軍兼將軍行木底州刺史兼兵署少正開國公揚承慶已下三人, 隨田守來朝, 便於越前國安置.”.

『續日本紀』 권22 淳仁天皇, “天平寶字三年(759)冬十月 辛亥, 迎藤原河清使判官內臟忌寸全成, 自渤海, 却廻, 海中遭風, 漂着對馬, 渤海使輔國大將軍兼將軍玄菟州刺史兼押衛官開國公高南申相隨來朝.”.

37) 『舊唐書』 권39 地理志 河北道 安東都護府, “初置領靺鞨州十四, 戶一千五百八十二, 去京師四千六百二十五里, 至東都三千八百二十里, 新城州都督府, 遼城州都督府, 哥勿州都督府, 建安州都督府, 南蘇州, 木底州, 蓋牟州, 代那州, 倉巖州, 磨米州, 積利州, 黎山州, 延津州, 安市州, 凡此十四州, 并無城池是高麗降戶, 散此, 諸軍鎮以其酋渠爲都督, 刺史, 羈縻之.”.

〈표 1〉 발해의 군사 편제

군사 편제	종류		
중앙군	10衛	左·右孟賁衛	궁궐 宿衛
		左·右熊衛	都城 방어
		左·右罷衛	都城 방어
		南左·右衛	禁軍(국왕 직속 친위부대)
	北左·右衛	禁軍(국왕 직속 친위부대)	
기타	左·右神策軍, 左·右三軍		
지방군	扶餘府 勁兵, 鴨綠府 遊騎軍, 若忽州都督, 木底州·玄菟州刺史 등 각 府·州의 지역 관할 군사		

다음으로 10세기 거란왕조 건국 이후, 거란의 군사 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사』 營衛志와 兵衛志를 보면, 거란의 군사 조직³⁸⁾은 크게 중앙군과 부족군, 지방군, 屬國軍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³⁹⁾ 중앙군은 騎軍으로 편성된 御帳親軍(皮室軍, 屬珊軍), 황실의 친위부대인 韓魯朶(宮衛)로 편성되어 있었고,⁴⁰⁾ 부족군은 親王大臣의 私兵으로 구성된 大首領部族軍과 사방의 변경을 지키는 衆部族軍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방군은 蕃漢人들로 구성된 五京鄉兵과 고려, 여진족 등을 방비하기 위해 설치한 동쪽 변방을 수비하는 邊境守兵으로 편성⁴¹⁾되어 있었다. 또한 거란은 59개의 屬國을 두었다고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 속국의

38) 거란의 군사 조직과 관련해서는 전병우, 「遼의 군사제도와 전술」, 2019 참조.

39) 또한 『요사』 병위지에는 거란은 15~50세 이하의 장정들을 징병하여 兵籍에 등록시켰음을 전하고 있다(『遼史』 권34 志4 兵衛志 上 兵制, “遼國兵制, 凡民年十五以上, 五十以下, 隸兵籍. 每正軍一名, 馬三疋, 打草穀, 守營鑪家丁各一人.”).

40)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御帳親軍; 『遼史』 권46 志16 百官志2 南皮室詳穩司·屬珊詳穩司;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宮衛騎軍;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大首領部族軍·衆部族軍.

41)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下 五京鄉丁·邊境守兵.

군사들을 차출하여 屬國軍으로 편성하기도 했다.⁴²⁾ 특히, 거란이 이렇게 속국군을 편성하여 운영했다는 것은 거란이 복속 민족을 비정규군인 蕃兵으로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란에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변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특수집단으로 파악되는 紮軍⁴³⁾이라는 군사집단이 존재했다.⁴⁴⁾ 그러나 이들의 군사 편제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에 보이고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규군의 편제 및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은 거란에 존재했던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특수한 군사집단이었음은 확실한 것 같다.

〈표 2〉 거란왕조의 군사 편제⁴⁵⁾

군사 편제	종류	
중앙군	御帳親軍(騎軍)	皮室軍[精銳甲兵]
		屬珊軍(蕃漢人 주축으로 구성)
	斡魯朶	황실 친위부대
부족군	大首領部族軍	親王大臣 사병 부대
	衆部族軍	사방의 변경을 지키는 호위 부대
지방군	五京鄉兵	五京의 蕃漢人으로 구성된 군대
	邊境守兵	동쪽 변경 수비(高麗, 女眞族 방어)
정에 기병	御帳親軍(騎軍)	皮室軍[精銳甲兵]
		屬珊軍(蕃漢人을 주축으로 구성)

42)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下 屬國軍.

43) 紮軍과 관련해서는 朴世完, 「遼金時代 紮集團의 編制와 役割」,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9~26쪽 참조.

44) 그리고 이들은 十二行紮軍, 各宮分紮軍, 遙輦紮軍, 各部族紮軍, 羣牧二紮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遼史』 권46 志16 百官志2 北面軍官, “十二行紮軍. 諸紮 並有司徒, 餘同詳穩司. 各宮分紮軍, 遙輦紮軍, 各部族紮軍, 羣牧二紮軍.”).

45) 『遼史』 권31~36 營衛志·兵衛志 참조.

비정규군	屬國軍	복속 국가(부족) 차출 蕃兵
기타	糺軍(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특수집단)	遙輦氏糺軍(발해와의 전쟁 참전)
		十二行糺軍
		各宮分糺軍
		各部族糺軍
		羣牧二糺軍

그런데, 10세기 발해와 전쟁을 벌였을 때 거란 태조는 925년 12월 거란의 수도였던 上京 臨潢府에서 출발해 발해 부여부까지 단 8일 만에 이르렀다고 한다.⁴⁶⁾ 이러한 점을 보면, 태조는 발해와의 전쟁 시 빠른 기동력을 상당히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태조는 중앙군의 어장친군과 황실 친위부대 알로타군을 주력으로 하여 군사 편제를 시행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耶律海里가 遙輦氏의 규군을 이끌고 발해의 상경 흘한성을 격파했다는 내용⁴⁷⁾도 보이고 있어, 여기에 규군도 편제되어 전쟁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란 태조는 이들을 주력으로 한 군사 편제를 바탕으로 발해와 20년이 넘도록 전쟁을 벌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10세기 전반 발해와 거란이 전쟁을 벌였을 당시 양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6) 김기섭, 「발해의 멸망과정과 원인」,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109~112쪽.

47) 『遼史』 권73 列傳3 耶律海里, “耶律海里, 字涅刺昆, 遙輦昭古可汗之裔. 太祖傳位, 海里與有力焉. 初受命, 屬籍比局萌覬覦, 而遙輦故族尤缺望. 海里多先帝知人之明, 而素服太祖威德, 獨歸心焉. 以故太祖託爲耳目, 數從征討. 既清內亂, 始置遙輦敵穩, 命海里領之. 天顯初征渤海, 海里將遙輦糺, 破忽汗城, 師般, 卒.”

Ⅲ. 大諲譔 시기 渤海의 군사력

10세기 발해의 군사력은 자료가 부족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⁴⁸⁾ 『고려사』, 『요사』 등에 보이고 있는 발해유민의 민호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기록들을 통해 대략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渤海世子 大光顯의 고려 投降 내용⁴⁹⁾ 과 고려 태조 시기 고려로 투항한 발해인들의 내용이 보이고 있다.⁵⁰⁾ 이와 관련해서는 <표 3>과 같다.

48)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군사력이 1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新唐書』 권219 列傳144 渤海, “玄宗 開元七年(719), … 門藝嘗質京師, 知利害, 爲武藝曰, 「黑水請吏而伐擊之是背唐也. 唐大國, 兵萬倍我, 與之產怨, 伐且亡. 昔高麗盛時, 士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疆, 唐兵一臨, 掃地盡矣. 今我衆比高麗三之一, 王將違之, 不可」”). 따라서 구체적인 발해의 군사력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49) 『고려사』에는 934년 7월에 대광현이 발해인 수만과 함께 투항했다고 한다(『高麗史』 권2 世家 第2 太祖, “十七年(934) 秋七月, 渤海國世子大光顯率衆數萬來投”). 그러나 『고려사절요』에서는 925년 12월 대광현이 대원군, 대화군, 모두간, 박어, 신덕 등을 포함한 발해인 수만 호를 데리고 고려에 투항했다고 하고 있어 기록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八年(925) 十二月, 契丹滅渤海, … 其世子大光顯及將軍申德·禮部卿大和鈞·均老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暮·左右衛將軍大審理·小將冒豆干·檢校開國男朴漁·工部卿吳興等率其餘衆, 前後來奔者數萬戶”).

50)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八年(925) 秋九月 丙申, 渤海將軍申德等五百人來投.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均老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暮·左右衛將軍大審理等率民一百戶來投. … 十二月 戊子, 渤海左首衛小將冒豆干·檢校開國南朴漁等率民一千戶來投. … 十年(927) 三月 甲寅, 渤海工部卿吳興等五十人 僧載雄等六十人來投. … 十一年(928) 三月 戊申, 渤海人金神等六十戶來投. … 十二年(929) 丙子, 渤海正近等三百餘人來投.”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十七年(934) 冬 十二月, 渤海陳林等百六十人來投. … 二十一年(938)是歲, 渤海人朴昇, 以三千餘戶來投.”

〈표 3〉 10세기 전반 고려 投降 발해인

주요인물	投降 시기	高麗國王	民戶·人口	사료
申德	925년 9월	太祖 8년	500人	『高麗史』太祖
大和鈞, 大元鈞, 大福壽, 大審理	925년 9월	太祖 8년	100戶	『高麗史』太祖
冒豆干, 朴漁	925년 12월	太祖 8년	1000戶	『高麗史』太祖
吳興	927년 3월	太祖 10년	50人	『高麗史』太祖
載雄	927년 3월	太祖 10년	60人	『高麗史』太祖
金神	928년 3월	太祖 11년	60戶	『高麗史』太祖
正近	929년 9월	太祖 12년	300여 人	『高麗史』太祖
陳林	934년 12월	太祖 17년	160人	『高麗史』太祖
朴昇	938년	太祖 21년	3000여 戶	『高麗史』太祖
大光顯	925년 12월 (高麗史節要), 926년 (東國通鑑), 934년 7월(高麗史)	太祖 8년 (高麗史節要), 太祖 9년 (東國通鑑), 太祖 17년 (高麗史)	數萬 戶	『高麗史』太祖, 『高麗史節要』太祖, 『東國通鑑』

〈표 3〉은 『고려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고려 태조 시기의 고려 투항 발해인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 투항 발해인들 중 징병 가능한 장정의 수를 1戶(평균 5명 추정)⁵¹⁾ 당 2명 정도로 계산한 결과, 기록상 인구수로 나타나고 있는 500명, 50명, 60명, 300여 명, 160명은 장정의 수를 인구수의 절반인 250명, 25명, 30명, 150여 명, 80명으로 계산되었다.⁵²⁾ 또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대광현의 수만 호는 정확한 民戶

51) 白永美, 「韓國 古代의 戶口 編制와 戶等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0~31쪽.

52) 『요사』 地理志와 兵衛志에는 상경도와 동경도의 각 州·縣들은 대부분 장정의 수가 민호 수 대비 대략 1.5~2배 정도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遼史』 권36 志6 兵

를 추정할만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어 1만 호 정도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았다. 이렇게 계산하여 통계를 내보니, 고려 투항 발해인들 중 장정의 수는 대략 2만 9천 명 정도로 계산되었다.⁵³⁾

다음으로 926년 1월 거란군과 마지막까지 싸웠던 3만 발해군(老相兵), 멸망 직후 저항했던 압록부의 遊騎 7천 군과 이후 발해 옛 지역의 저항세력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다.⁵⁴⁾ 멸망 직후 거란에 저항했던 발해의 옛 지역들은 압록부 이외에 長嶺府, 鄭頡府, 安邊府, 定理府, 南海府 그리고 철주 정도가 있었다.⁵⁵⁾ 비록 압록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저항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략 각 1천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⁵⁶⁾ 특히 압록부 이외에 이들 세력은 거란의 大元帥 耶律堯骨과 夷離

衛志 下;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권38 志8 地理志2 東京道 참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장정의 수를 1호당 2명으로 계산한 것임을 밝혀둔다.

- 53) 『帝王韻紀』에는 『고려사』와 달리 태조 8년(925)에 申德, 大和鈞 등 발해인 600호가 고려로 投降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있다(『帝王韻紀』 권 下 前高麗舊將大祚榮, “我太祖八年(925) 乙酉, 後唐莊宗同光元年也 舉國相率朝王京. 誰能知變先歸附, 禮部卿與司政卿 禮部卿大和鈞·司政卿左右將軍大理著·將軍申德·大德·志元等六百戶來附.”). 하지만, 『고려사』에서 나타나는 925년 고려 投降 발해인들에 대한 내용이 『제왕운기』 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사』의 기록을 따르고자 한다.
- 54) 『遼史』 권73 列傳 第3 蕭阿古只, “功渤海, 破扶餘城, 獨將騎兵五百, 敗老相軍三萬. 渤海既平, 改東丹國. 頃之, 已降郡縣復叛, 盜賊蜂起. 阿古只與康墨記討之, 所向披靡. 會賊遊騎七千自鴨綠府來援勢張甚. 阿古只帥麾下精銳, 直犯其鋒, 一戰克之斬馘三千餘, 遂進軍破回跋城.”.
- 55) 『遼史』 권2 本紀2 太祖 下, “天顯元年(926) 三月 戊午, 遣夷離畢康默記, 左僕射韓延徽攻長嶺府. 甲子, 祭天. 丁卯, 幸人皇王宮. 己卯, 安邊鄭頡定理三府叛, 遣安端討之. 丁丑, 三府平. 壬午, 安端獻俘, 誅安邊府叛帥二人. 五月 辛酉, 南海定理二府復叛, 大元帥堯骨討之. 六月 丁酉, 二府平. 秋七月, 丙辰 鐵州刺史衛鈞反. 乙丑, 堯骨攻拔鐵州.”.
- 56) 다만, 이들 지역의 군사 규모는 압록부 遊騎軍의 규모가 7천 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와 비슷한 군사력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畢 康默記, 左僕射 韓延徽 등이 직접 나서서 토벌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압록부 이외 지역들의 세력 규모를 각 1천 명 정도로 계산하여 이들의 장정 수를 통계내어보니, 대략 4만 3천 명 정도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요사』 兵衛志와 地理志에서 거란으로 遷徙된 발해인들의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⁵⁷⁾ 이들은 대부분 거란의 上京道와 東京道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상경도는 <표 4>, 동경도는 <표 5>과 같다.

<표 4> 거란 上京道 소속 발해인 장정

5京	府	州·軍	縣	民戶	壯丁	居住集團
上京道	臨潢府		長泰縣	4,000	7,000	長平縣 渤海人+漢人
上京道	臨潢府		定霸縣	2,000	6,000	強師縣 渤海人+漢人
上京道	臨潢府		宣化縣	4,000	8,000	鴨綠府 渤海人
上京道	臨潢府		保和縣	4,000	6,000	富利縣 渤海人
上京道	臨潢府		潞縣	3,000	6,000	渤海人+薊州 漢人
上京道		祖州 天成軍	長霸縣	2,000	4,000	黃龍府 龍州 渤海人
上京道		祖州 天成軍	咸寧縣	1,000	2,000	遼陽 渤海人
上京道		懷州 奉陵軍	扶餘縣	1,500	3,000	扶餘縣 渤海人
上京道		懷州 奉陵軍	顯理縣	1,000	2,000	龍泉府 渤海人
上京道		永州 永昌軍	長寧縣	4,500	9,000	顯德府 渤海人
上京道		永州 永昌軍	義豐縣	1,500	3,000	鐵利府 渤海人
上京道		降聖州 開國軍	永安縣	800	1,500	龍原府 渤海人
上京道		饒州 匡義軍	長樂縣	4,000	8,000	遼陽 渤海人
上京道		饒州 匡義軍	臨河縣	1,000	2,000	豐永縣 渤海人
上京道		饒州 匡義軍	安民縣	1,000	2,000	諸邑城 渤海人

57) 『遼史』 권36 志6 兵衛志 下; 권37 志7 地理志 1 上京道; 권38 志8 地理志 2 東京道 참조.

上京道		鳳州(頭下)		4,000	8,000	安寧郡 渤海人
합계				39,300	77,500	

〈표 5〉 거란 東京道 소속 발해인 장정

5京	府	州·軍	縣	民戶	壯丁	居住集團
東京道	遼陽府		遼陽縣	1,500	3,000	金德縣 渤海人
東京道	遼陽府		仙鄉縣	1,500	3,000	永豐縣 渤海人
東京道	遼陽府		鶴野縣	1,200	2,400	雞山縣 渤海人
東京道	遼陽府		析木縣	1,000	2,000	花山縣 渤海人
東京道	遼陽府		紫蒙縣	1,000	2,000	紫蒙縣 渤海人
東京道	遼陽府		興遼縣	1,000	2,000	長寧縣 渤海人
東京道		開州 鎮國軍	開遠縣	1,000	2,000	龍原縣 渤海人
東京道		鹽州		300	500	龍河郡 渤海人
東京道		穆州 保和軍		300	500	會農郡 渤海人
東京道		賀州	會農縣	300	500	吉理郡 渤海人
東京道		辰州 奉國軍		2,000	4,000	辰州 渤海人
東京道		盧州 玄德軍	建安縣	300	500	衫盧郡 渤海人
東京道		鐵州 建武軍		1,000	2,000	鐵州 渤海人
東京道		興州 中興軍		300	300	興州 渤海人
東京道		湯州		500	700	湯州 渤海人
東京道		崇州 隆安軍		500	1,000	崇州 渤海人
東京道		海州 南海軍	崇信縣	1,500	3,000	南海府 渤海人
東京道		耀州	臨溟縣	700	1,200	椒州 渤海人
東京道		嬪州 柔遠軍		500	700	晴州 渤海人
東京道		綠州 鴨綠軍		2,000	4,000	神州 渤海人
東京道		桓州		700	1,000	桓州 渤海人
東京道		豐州		300	500	豐州 渤海人
東京道		正州		500	700	正州 渤海人
東京道		慕州		200	300	安遠府 渤海人

東京道		顯州 奉先軍		300	600	顯德府 渤海人
합계				20,400	38,400	

〈표 4〉, 〈표 5〉의 통계 수치는 『요사』에 보이는 발해인들의 인구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자료들로만 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상경도 발해인의 장정 수는 대략 7만 7천 5백 명 정도로 계산되었고, 동경도 발해인의 장정 수는 대략 3만 8천 4백 명 정도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상경 임황부 長泰縣, 定霸縣, 潞縣의 민호가 발해인과 한인이 함께 섞여 살았던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C-1 長泰縣은 본래 발해국 長平縣 백성들이다. 태조가 대인선을 정벌할 때, 이 읍을 함락시키고, 그 백성들을 上京 서북쪽으로 옮겨 漢人들과 섞여 살게 했다. 호수는 4천이었다.⁵⁸⁾

C-2 定霸縣은 본래 扶餘府 強師縣 백성들이다. 태조가 부여부를 함락시키고, 그 백성들을 上京 서쪽으로 옮겨 漢人들과 섞여 살게 하고, 토지를 나누어 주어 농사짓게 했다. (중략) 호수는 2천이었다.⁵⁹⁾

C-3 潞縣은 본래 幽州 노현 백성들이다. 天贊 원년(922)에 태조가 薊州를 격파하고 노현 백성들을 잡아와서 上京 동쪽에 배치해 발해인들과 섞여서 살게 하고 崇德宮에 隸屬시켰다. 호수는 3천이었다.⁶⁰⁾

C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에는 발해인과 한인이 섞여 살고 있던

58)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長泰縣, 本渤海國長平縣民, 太祖伐大遼讓, 先得是邑遷其人於京西北, 與漢民雜居. 戶四千.”.

59)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上京 臨潢府 定霸縣, 本扶餘府強師縣民, 太祖下扶餘遷其人於京西與漢人雜處, 分地耕種. … 戶二千.”.

60)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潞縣, 本幽州潞縣民, 天贊元年, 太祖破薊州, 掠潞縣民, 布於京東與渤海人雜處. 隸崇德宮. 戶三千.”.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발해인을 1/2로 계산⁶¹⁾ 하여 통계를 내보았더니, 상경도 발해인의 장정 수는 약 6만 8천 명 정도로 계산되었다.

또한 임황부, 요양부에 분포되어있는 발해인들의 민호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요사』에는 이들의 장정 수가 1호 당 대략 1.5~2배 정도로 계산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⁶²⁾ 다만, 『요사』 지리지와 병위지에 보이는 다른 주·현들과는 달리, 임황부 宣化縣은 발해인의 민호와 장정이 각각 4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황부의 鳳州는 발해인 민호 4천에 장정 수는 1천 명으로 민호보다 장정의 수가 적게 기록⁶³⁾ 되어 있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 61) 다만, 長泰縣과 定霸縣은 본래 발해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거란 태조가 발해 멸망 직후 이들 발해인을 漢人들과 함께 雜居하게 했다고 한다(『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長泰縣·定霸縣). 이러한 점을 보면, 장태현과 정패현의 민호는 한인보다 발해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潞縣은 본래 漢의 幽州 노현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922년 거란 태조가 薊州民들을 노현으로 옮기면서 한인과 발해인들을 함께 잡거하게 했다고 한다(『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潞縣). 그러므로 노현의 민호는 장태현, 정패현과는 반대로 발해인보다 한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태현, 정패현, 노현에 잡거했던 발해인과 한인의 정확한 민호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 민호를 각각 절반의 수치로 설정하여 계산한 것임을 밝혀둔다.
- 62) 『요사』 지리지와 병위지 五京鄉丁을 보면, 선화현과 봉주를 제외한 상경도와 동경도의 각 주·현들의 군사징발 가능한 장정 수는 민호 수 대비 대략 1.5~2배 정도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遼史』 권36 志6 兵衛志 下;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遼史』 권38 志8 地理志2 東京道 참조). 또한 병위지 兵制를 보면, 거란(요)은 15세~50세 이하의 남자들은 병적에 등록했다는 내용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5~50세의 남성들은 군역을 짊어졌다는 것이다(『遼史』 권34 志4 兵衛志 上 兵制 참조). 따라서 여기서는 군사로 징발가능한 장정의 수를 1호 당 대략 2배 정도로 계산한 것임을 밝혀둔다.
- 63) 『요사』 병위지와 지리지에는 선화현과 봉주를 제외한 각 주·현들은 모두 장정의 수가 민호의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遼史』 권36 志6 兵衛志 下; 권37 志7 地理志1~권41 志11 地理志5 참조.)

D-1 臨潢府 臨潢縣 장정 7천, 長霸縣 장정 8천, 定霸縣 장정 6천, 宣化縣 장정 4천, 潞縣 장정 6천, 易俗縣 장정 1천 5백, 遷遼縣 장정 1천 5백. (중략) 頭下 鳳州 장정 1천 (하략).⁶⁴⁾

D-2 宣化縣은 본래 遼東 神化縣 백성들인데, 태조가 鴨綠府를 격파하고 그 백성을 모두 옮겨서 上京 남쪽에 살도록 했다. 統和 8년(990) 여러 궁의 提轄司 소속 민호를 배치하고, 彰愍宮에 隸屬시켰다. 호수는 4천이었다.⁶⁵⁾

D-3 頭下軍州 (중략) 鳳州는 稟離國의 옛 땅이자, 발해의 安寧郡 지역으로 南王府 5帳이 나누어 받은 땅이다. 韓州 북쪽 2백 리 지점에 있고, 서북으로 9백 리를 가면 上京에 다다른다. 호수는 4천이었다.⁶⁶⁾

D 자료에 보이는 상경 임황부의 선화현, 봉주 발해인의 장정 수를 2배 정도로 계산하여 통계를 내어보니, 선화현과 봉주의 발해 장정은 각각 8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상경도 발해인의 민호는 약 3만 4천 호, 장정의 수는 6만 8천 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요사』의 상경도, 동경도 발해인들의 인구수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통계를 내본 결과, 이들 발해인의 장정 수는 대략 10만 6천 4백 명 정도로 계산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발해 老相兵 3만 군사와 멸망 직후 거란에 저항했던 옛 발해 지역의 세력들을 포함한 수치일 것으로 짐

64) 『遼史』 권36 志6 兵衛志 下, “臨潢府, 長泰縣丁八千, 保和縣丁六千, 定霸縣丁六千, 宣和縣丁四千 … 易俗縣丁一千五百, 遷遼縣丁一千五百. 祖州, 長霸縣丁四千, 咸寧顯丁二千 … 懷州. 扶餘縣丁三千. 顯理縣丁二千, … 永州, 長寧縣丁九千, 義豐縣丁三千, … 降聖州永安縣丁一千五百. 饒州, 長樂縣丁八千, 臨河縣丁二千, 安民縣丁二千. 頭下 … 鳳州丁一千.”

65)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宣化縣, 本遼東神化縣民, 太祖破鴨綠府, 盡徙其民居京之南. 統和八年, 以諸宮提轄司人戶置. 隸彰愍宮. 戶四千.”

66)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頭下軍州 … 鳳州, 稟離國故地, 渤海之安寧郡境, 南王府五帳分地. 在韓州北二百里, 西北之上京九百里. 戶四千.”

작된다. 왜냐하면, 상경도와 동경도의 발해인들은 발해멸망을 전후로 해서 거란으로 흘러 들어간 발해인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⁶⁷⁾

이와 더불어 天祚帝 天慶 3년(1113) 당시 거란의 전체 인구수는 대략 500만 명 정도였을 것이고, 이 중에서 상경도는 약 62만 명, 동경도는 약 150만 7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⁶⁸⁾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만 6천 4백 명 정도로 파악되는 상경·동경도의 발해 장정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해보니, 이들은 거란 전체 인구에 약 2.1% 정도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더욱이 이들 중에 6만 8천 명 정도의 상경도 발해 장정들은 상경도 인구에 약 11% 정도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3만 8천 4백 명 정도의 동경도 발해 장정들은 동경도 인구에 약 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통계 비율은 거란이 발해인들을 상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遷徙시킨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⁶⁹⁾

그런데, 『요사』 병위지에는 거란 태조가 즉위하기 전, 거란이 전투에 가용할 수 있는 최대 군사력이 대략 40만 명 정도였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⁷⁰⁾ 이를 바탕으로 보면, 태조 즉위 이전 거란의 전체 인구수는 대략

67) 遼代 발해인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임상선, 「渤海人の 契丹 内地로의 강제 遷徙와 居住地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第47輯, 2013 참조.

68) 張國慶, 『遼代社會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74~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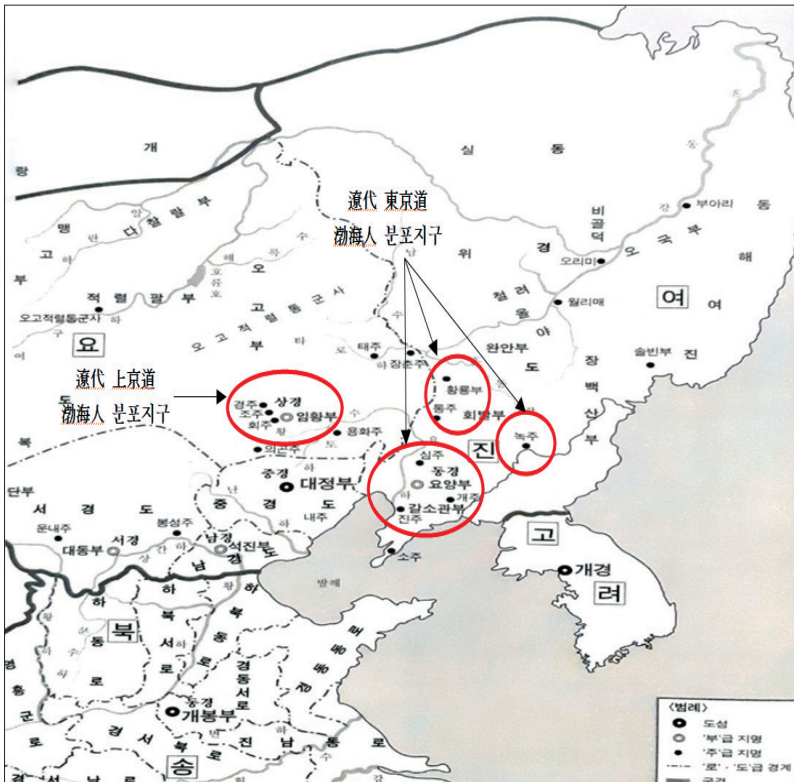
69) 11세기 전반 거란 聖宗 시기의 시라무렌강 하류 지역, 즉 상경도 지역의 인구수는 민호 5만 3천 7백 호의 약 5배(一戶=5명)인 26만 8천 5백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韓茂莉, 「遼代前中期西拉木倫河流域以及毗鄰地區農業人口探論」, 『社會科學輯刊』, 2001 第6期(總第 137期), 105~106쪽). 이는 天慶 3년(1113) 상경도의 인구수 약 62만 명의 절반이 안되는 수치인데, 여기에는 鳳州의 발해 장정 8천 명을 제외한 발해인 6만 명 정도가 포함되어있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종대 상경도 내 발해 장정의 인구 비율을 계산해보면, 이들은 상경도 전체 인구 중에 22%나 되는 비율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70) 『遼史』 권34 志4 兵衛志 上 참조.

10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즉위 이후 태조 시기 거란으로 遷徙된 발해인의 민호 약 5만 4천 4백 호(약 27만 2천 명)를 더하면 당시 거란의 전체 인구수는 대략 127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태조 시기 거란의 전체 인구 중 발해 장정들은 대략 8.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발해는 정규군 이외에 靺鞨人들을 비정규군으로 편성하여 蕃兵

[그림 1] 遼代 상경도·동경도 발해인의 분포 구역⁷¹⁾



71) 이계지 저, 나영남·조복현 역, 『요·금의 역사』, 신서원, 2014, 23쪽 지도 활용.

으로 활용했을 것이지만,⁷²⁾ 대인선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들 靺鞨蕃兵을 활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9세기경부터 黑水靺鞨 등이 발해의 통제에서 벗어나 신라, 고려, 후당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보이고 있고,⁷³⁾ 또 이들은 고려의 蕃兵으로도 활동하고 있음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⁷⁴⁾ 특히나 흑수말갈은 會昌 2년(842) 거란의 공격을 받아 여진과 韃靼으로 분화되었다고 하고 있어,⁷⁵⁾ 9세기 중반

72) 발해는 8세기 文王代로 접어들면서 흑수말갈을 포함한 말갈제부를 복속시켜 이들을 직접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권은주, 「靺鞨 7부의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輯, 2009, 55~66쪽). 그러므로, 발해는 이들 말갈인들을 蕃兵으로 편성하여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73)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憲康王, “十二年(886) 春, 北鎮奏, 狄國人入鎮, 以片木掛樹而歸, 遂取以獻, 其木書十五字云, 寶露國與黑水國人, 共向新羅國和通”.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12 景明王, “五年(921) 二月, 靺鞨別部達姑衆, 來寇北邊, 時太祖將堅權, 鎮朔州率騎兵大破之, 匹馬不還, 王喜, 遣使移書, 謝於太祖”.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三年(920) 三月, 以北界鶻巖城, 數爲北狄所侵, 命庾黔弼, 率開定軍三千, 至鶻巖於東山, 築一大城以居, 由是, 北方晏然. … 四年(921) 春二月 甲子, 黑水酋長高子羅, 率百七十人來投. 壬申, 達古狄百七十人侵新羅, 道由登州, 將軍堅權邀擊大敗之匹馬無還者. 命賜有功者, 穀人五十石, 新羅王聞之, 喜遣使來謝”.

『高麗史』 권92 列傳5 諸臣 王順式傳 尹瑄, “尹瑄, 塩州人. 爲人沉勇, 善韜鈴. 初以弓裔殺殺無厭, 慮禍及己, 遂率其黨, 走北邊. 聚衆至二千餘人, 居鶻巖城, 召黑水蕃衆, 久爲邊郡害. 及太祖卽位, 率衆來附, 北邊以安.”.

『新五代史』 권74 四夷附錄3 黑水靺鞨, “同光二年(924), 黑水兀兒遣使者來, 其後常來朝貢自登州泛海, 出青州. 明年, 黑水胡獨鹿亦遣使來. 兀兒胡獨鹿若其兩部酋長, 各以使來”.

74)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十九年(936) 甲午, 隔一利川而陣, 王與甄萱觀兵. … 大相庾黔弼元尹官茂官憲等領黑水達姑鐵勒諸蕃勁騎九千五百”.

75) 『資治通鑑』 권246 唐紀62 武宗至道昭肅孝皇帝, “會昌二年(842), … 李心傳曰 「韃靼之先與女眞同種, 靺鞨之後也. 靺鞨本臣高麗, 唐滅高麗, 其遺人進入渤海, 惟黑水完疆. 及渤海盛靺鞨皆役屬. 後爲契丹奚所攻, 部族分散. 其居混同江上者曰女眞, 乃黑水遺種也. …」”.

『新五代史』 권74 四夷附錄3 韃靼, “韃靼, 靺鞨之遺種, 本在奚契丹之東北, 後

부터 발해의 말갈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말갈이 발해의 지배권에서 점차 이탈해가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선 시기 발해는 말갈인들을 비정규군으로 편성하여 蕃兵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⁶⁾

이렇게 고려와 거란으로 흘러 들어간 발해 장정들의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10세기 당시 발해의 군사력은 최소 13만 5천 4백 명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치는 고려·거란으로 흘러 들어간 발해인들 중 인구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기록들로만 구성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대략적인 통계 수치임을 밝혀둔다.⁷⁷⁾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발해의 군사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부 발해유민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10세기 전반 이들의 군사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10세기 전반 對渤海 전투에 동원된 거란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爲契丹所攻而部族分散，或屬契丹，或屬渤海，別部散居陰山者，自號韃靼。”

76) 따라서 여기서는 10세기 발해의 군사력을 파악하는데 여진(말갈)의 민호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77) 이외에 발해멸망 전후로 하여 거란으로 遷徙되거나 東丹國의 지배를 받았던 발해인들 중 민호 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기록에 보이고는 있지만, 인구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10세기 발해·거란 전쟁 당시 많은 사상자가 있었을텐데, 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역시 인구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발해의 군사력을 파악하는데 이들은 포함시키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IV. 太祖 耶律阿保機 시기 契丹의 군사력

『요사』에 의하면, 10세기 전반 거란의 총 군사력은 4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다.

E-1 遙輦耶瀾可汗 10년 辛酉(901)에 태조(야율아보기)가 斧鉞을 하사받고, 독자적으로 정벌에 나서 室韋, 于厥, 奚를 격파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포로와 廬帳을 노획했다. (중략) 11년(902)에 군사 40만 명을 거느리고 代北을 쳐서 9개 郡縣을 정벌해 9만 5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⁷⁸⁾

E 자료는 902년 거란이 代北을 정벌할 때 동원한 총 군사 수가 40만 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거란 태조는 925년 12월 발해의 부여부를 공격하려 출정했을 때 상경 임황부에서 발해 부여부까지 8일 만에 달려갔다⁷⁹⁾고 하고 있어, 발해와 전투를 벌일 때는 거란의 모든 병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는 당시 거란이 발해와 전투를 벌일 때 기동력이 빠른 기군 위주로 군대를 편성했음을 의미한다. 태조 시기의 기군은 어장친군에 소속된 태조가 만든 皮室軍과 地皇后 述律氏가 蕃漢人을 주축으로 해서 만든 屬珊軍이 있었다.⁸⁰⁾

78) 『遼史』 권34 志4 兵衛志 上, “遙輦耶瀾可汗十年(901), 歲在辛酉, 太祖授鉞專征, 破室韋于闕奚三國, 俘獲廬帳, 不可勝紀. 十月, 授大迭烈府夷離董, 明賞罰, 繕甲兵, 休息民庶, 滋蕃羣牧務在戢兵. 十一年(902), 摠兵四十萬伐代北, 克郡縣九, 俘九萬五千口. 十二年(903), 德祖討奚, 俘七千戶. 十五年(906), 遙輦可汗卒, 遺命遜位于太祖.”

79) 김기섭, 「발해의 멸망과정과 원인」, 2008, 109~112쪽.

80) 『遼史』 권46 志16 百官志2;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御帳親軍.

F-1 大帳皮室軍: 太宗이 설치했고, 騎兵이 30만이었다.⁸¹⁾

F-2 南皮室詳穩司: 太宗이 천하의 精甲 30만 명을 선발해서 皮室軍으로 삼았다. 이보다 먼저 太祖가 行營을 宮으로 삼고, 여러 部의 건장한 1천여 명을 선발해 腹心部로 삼았으며, 耶律老古를 공이 있다고 하여 右皮室詳穩으로 삼았다. 그러니 피실군은 태조 때부터 이미 있었고, 복심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태종이 30만 명으로 증원시켰을 뿐이다.⁸²⁾

F-3 屬珊軍: 地皇后가 설치했고, 騎兵이 20만이었다.⁸³⁾

F-4 屬珊軍詳穩司: 應天皇太后가 설치했고, 군사는 20만 명이다. 蕃과 漢의 精銳兵으로 선발했는데, 아름답기가 산호와 같아서 이렇게 이름했다.⁸⁴⁾

F 자료는 거란의 피실군과 속산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피실군은 F-2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조시기에 처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피실군[精甲: 精銳甲兵]은 太宗 때 이르러 군사 수가 3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있으니, 이는 태조 시기 피실군의 군사 수가 30만 명보다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3, F-4 자료에는 속산군[精銳兵]의 군사 수가 2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피실군과 마찬가지로 태종 때 이르러 증가한 군사 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요사』 병위지에는 황실의 친위부대인 알로타(궁위)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81)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御帳親軍, “大帳皮室軍. 太宗置, 凡三十萬騎.”

82) 『遼史』 권46 志16 百官志2, “南皮室詳穩司. 太宗選天下精甲三十萬爲皮室軍. 初, 太祖以行營爲宮, 選諸部豪健千餘人, 置爲腹心部耶律老古以功爲右皮室詳穩. 則皮室軍自太祖時已有, 卽腹心部是也. 太宗增, 多至三十萬耳.”

83)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御帳親軍, “屬珊軍. 地皇后置, 二十萬騎.”

84) 『遼史』 권46 志16 百官志2, “屬珊軍詳穩司. 應天皇太后置, 軍二十萬. 選蕃漢精兵, 珍美如珊瑚故名.”

G-1 太祖가 迭刺部를 선양을 받은 후, 질랄부를 五院과 六院으로 나누어 황족을 통솔케하니, 親衛軍은 쇠퇴해졌다. 이에 幹魯朶法을 세워 州·縣을 나누고 戶·丁을 나누어 중앙은 강하게, 주변은 약하게 했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잇도록 하여 각 황제 때마다 宮衛를 세우게 했다. 그리하여 궁에 들어오면 守衛에 종사하고 나가면 호종하게 했으며, 황제의 장례를 지내면 陵을 지키도록 했다. 출정할 때는 5京과 2州의 각 堤轄司에 격문을 전해 군사를 모집했고, 주·현이나 부족에서 징발하지 않아도 10만 騎를 바로 갖출 수 있었다. (하략)⁸⁵⁾

G 자료는 알로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황제가 親征할 때 알로타는 주·현과 부족에서 징발하지 않아도 10만 기군을 바로 갖출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알로타의 내용과 위의 피실군, 속산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거란 태조 때 기군의 군사 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였을 것이고, 태종 때 이르러 이들 기군의 군사력이 증가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⁸⁶⁾

85) 『遼史』 권31 志1 營衛志 上 宮衛騎軍, “太祖以迭刺部受禪, 分本部爲五院, 六院, 統二皇族而親衛缺然. 乃立幹魯朶法, 裂州縣, 割戶丁, 以強幹弱支. 詒謀嗣續世建宮衛. 入則居守 出則扈從, 葬則因以守陵. 有兵事, 則五京, 二州各提轄司傳檄而集, 不待調發州縣, 部族十萬騎軍, 已立具矣.”

86) 『거란국지』에는 거란 태종 시기 피실군과 속산군의 병력이 각각 3만, 2만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契丹國志』 권23 兵馬制度, “晉末, 契丹主投下兵, 謂之大帳, 有皮室兵約三萬人騎, 皆精甲也, 爲其爪牙. 國母述律氏投下, 謂之屬珊, 有衆二萬.”). 이 기록을 토대로 거란 태종 때 피실군과 속산군의 병력을 도합 5만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윤영인,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정복왕조” 거란의 군사력, 2021, 227~228쪽). 그러나 이것은 피실군과 속산군이 태조 때 갖 설치되었을 무렵의 병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태종 때는 거란이 후당과 후진을 멸망시키는 등 거란이 증원으로 진출하여 세력을 확장해가던 시기였다(『遼史』 권3·4 太宗本紀 참조). 더욱이 거란은 강한 騎軍을 주력으로 하는 집단이었다(『遼史』 권34 志4 兵衛志 참조). 그런데, 거란의 최정예 기군이었던 피실군(精甲)과 속산군(精銳

여기에 더해 태조 시기 거란에 복속되었던 여진 3백 호,奚 7백 호, 于骨里 6천 호⁸⁷⁾도 있었다. 다만, 『요사』 태조본기 神冊 4년(919)에는 태자가 烏古部(于骨里)를 격파하고 포로 1만 4천 2백 명을 노획했다고 한다.⁸⁸⁾ 이를 통해 볼 때, 1만 2천 명으로 파악되는 우골리의 장정 수는 대략적인 수치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여진과 해의 장정 수도 정확한 인구수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 민호의 2배 정도로 계산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민호 수의 2배로 장정 수를 계산해보니, 여진 6백 명, 해 1천 4백 명, 우골리 1만 2천 명 정도로 파악되어 이들 복속 부족들의 장정 수는 대략 1만 4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이들은 거란에 복속된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隸屬民의 신분으로 비정규군(蕃兵)인 속국군으로 편성되어 대발해 전투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또한 거란에는 위에서 언급한 황실을 호종하기 위해 설치했던 알로타⁸⁹⁾라는 조직이 있었다. 이는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연속적으로 설치되

兵의 병력이 태종 시기에 각각 2만, 3만이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거란국지』의 태종대 피실군과 속산군 병력이 2만, 3만이었다는 기록은 이들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의 병력으로 보는게 옳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병력은 점차 증가되어 925년 12월~926년 1월 발해 정벌 시에는 도합 10만(피실군 5만, 속산군 5만 추정), 태종 때 이르러서는 도합 50만(피실군 30만, 속산군 20만)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御帳親軍; 『遼史』 권46 志16 百官志2).

87) 張國慶, 『遼代社會史研究』, 2006, 78쪽.

88) 『遼史』 권2 本紀2 太祖 下, “神冊四年(919) 冬十月 丙午, 次烏古部, 天大風雪, 兵不能進, 上禱于天, 俄頃而霽. 命皇太子將先鋒軍進擊, 破之, 俘獲生口萬四千二百, 牛馬車乘盧帳, 器物二十萬. 自是舉部內附.”.

89) 알로타는 황실의 호위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 거란의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설치했던 황실 친위조직이다(『遼史』 권31 志1 營衛志 上 宮衛騎軍 참조). 알로타에 대해서는 崔益柱, 「遼代の宮戸」, 『歷史學報』 제57집, 1973; 王德忠·李春燕, 「遼代斡魯朵問題研究綜述」, 『東北史地』, 吉林省社會科學院, 2009-3; 林相先, 「遼代斡魯朵의 宮主와 그 名稱」, 『東洋史學研究』 第128輯, 2014; 임상선, 「『遼史』 地理志의 斡魯朵 州·縣」, 『高句麗渤海研究』 49, 2014 참조.

었고, 알로타의 군사는 正丁, 蕃漢軍事[蕃漢轉丁]⁹⁰⁾, 出騎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태조의 알로타는 算幹魯朶[弘義宮]라고 했는데, 산알로타의 군사는 정정 1만 6천 명, 변한군사 1만 4천 명, 출기군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H-1 算幹魯朶: 太祖가 설치했다. 거란어로 心腹을 算이라 했고, 宮을 幹魯朶라고 한다. 산알로타는 弘義宮이다. [산알로타는] 心腹위사들로 배치했고, [또한 여기에] 발해 포로와 錦州의 민호를 보충했다. 알로타는 臨潢府에 있고 陵寢은 祖州 동남쪽 20리에 있다. 正戶 8천, 蕃漢轉戶 7천, 出騎軍 6천 명이었다. 錦州·祖州·嚴州·祺州·銀州 5주가 있고, 富義縣 1縣이 있다. (하략)⁹¹⁾

H-2 弘義宮: 正丁 1만 6천 명, 蕃漢轉丁 1만 4천 명, 騎軍 6천 명.⁹²⁾

H 자료는 태조의 산알로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산알로타의 군사 중에는 祖州 長霸縣과 咸寧縣으로 遷徙된 약 6천 명 정도의 발해인들이 포함되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산알로타의 총 군사 수는 3만 6천 명 정도로 파악된다. 그런데, 장패현 발해인들은 발해의

90) 『요사』 영위지 宮衛騎軍條에는 알로타는 正丁, 蕃漢轉丁, 出騎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遼史』 권31 志1 營衛志 上; 권35 志5 兵衛志 中 宮衛騎軍). 여기서 말하는 蕃漢轉丁은 蕃漢軍事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알로타라는 조직이 황실을 호위하는 친위조직이었기 때문에 변한전정은 변한군사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91) 『遼史』 권31 志1 營衛志 上, “宮衛, … 算幹魯朶, 太祖置. 國語心腹曰算, 宮曰幹魯朶. 是爲弘義宮. 以心腹之衛置, 益以渤海俘, 錦州戶. 其幹魯朶在臨潢府, 陵寢在祖州東南二十里. 正戶八千, 蕃漢轉戶七千, 出騎軍六千. 州五, 錦祖嚴祺銀. 顯一, 富義.”

92)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宮衛騎軍, “弘義宮, 正丁一萬六千, 蕃漢轉丁一萬四千, 騎軍六千.”

부여부였던 龍州에서 遷徙된 집단⁹³⁾ 이었고, 함령현 발해인들은 태조가 요양을 격파하고 遷徙시킨 집단⁹⁴⁾ 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 발해 장정들은 발해와의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발해와의 전투에 투입 가능한 산알로타의 군사 수는 이들 6천 명 정도의 발해 장정을 제외한 3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황후(應天皇太后)도 알로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황후의 알로타는 蒲速盃斡魯朶[長寧宮]으로, 이들 군사는 정정 1만 4천 명, 변한군사 1만 2천 명, 출기군 5천 명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I-1 蒲速盃斡魯朶: 應天皇太后가 설치했다. [거란어로]興隆을 蒲速盃이라 했다. 이것이 長寧宮이다. 遼州 海濱縣 등의 민호로 배치했다. 斡魯朶는 高州에 있고, 陵寢은 龍化州 동쪽 1백 리 지점에 있다. 世宗이 兩國皇帝의 宮院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正戶 7천, 蕃漢轉戶 6천, 出騎軍 5천이었다. 遼州·儀坤州·遼西州·顯州 4州가 있고, 奉先縣·歸義縣·定霸縣 3縣이 있다. (하략)⁹⁵⁾

I-2 長寧宮: 正丁 1만 4천 명, 蕃漢轉丁 1만 2천 명, 騎軍 5천 명.⁹⁶⁾

93)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長霸縣, 本龍州長霸縣民, 遷于此. 戶二千.”. 『遼史』 권38 志8 地理志2 東京道, “龍州 黃龍府, 本渤海扶餘府. 太祖平渤海遷, 至此崩, 有黃龍見, 更名.”.

94) 『遼史』 권37 志7 地理志1 上京道, “咸寧縣, 本長寧縣. 破遼陽, 遷其民置. 戶一千.”.

95) 『遼史』 권31 志1 營衛志 上 宮衛, “蒲速盃斡魯朶, 應天皇太后置. 興隆曰, 蒲速盃. 是爲長寧宮. 以遼州及海濱縣等戶置. 其斡魯朶在高州, 陵寢在龍化州東一百里. 世宗分屬讓國皇帝宮院. 丁戶七千, 蕃漢轉, 戶六千, 出騎軍五千. 州四遼儀坤遼西顯, 縣三, 奉先歸義定霸.”.

96) 『遼史』 권35 志5 兵衛志 中 宮衛騎軍, “長寧宮, 正丁一萬四千, 蕃漢轉丁一萬二千, 騎軍五千.”.

I 자료는 포속완알로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포속완알로타의 변한군사 중에는 遼州, 顯州, 정패현으로 遷徙된 발해인들이 포함되어있다.⁹⁷⁾ 그러므로 포속완알로타의 총 군사 수는 약 3만 1천 명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주와 정패현이 포속완알로타에 편입된 시기는 현주는 거란 세종 시기, 정패현은 거란 聖宗 統和 8년(990)이기 때문에 현주, 정패현의 발해 장정들은 발해와의 전투에는 동원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시 발해와의 전투에 동원 가능한 포속완알로타의 군사 수는 민호의 2배로 계산된 현주의 6백 명, 정패현의 3천 명을 제외한 2만 7천 4백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거란이 총 병력 40만 명 중에서 발해와의 전투에 동원했던 병력은 약 17만 1천 4백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會同 7~9년(944~946) 거란 태종이 後晉과 전쟁을 벌여 鎮州를 함락시킬 때 동원된 거란의 군사는 20만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⁹⁸⁾ 태조 시기

97) 『遼史』 권2 本紀 第2 太祖 下, “神冊四年(919) 二月 丙寅, 修遼陽故城, 以漢民渤海戶實之, 改爲東平郡置防禦使”.

『遼史』 권37 志7 地理志 1 上京道, “臨潢府 定霸縣, 本扶餘府強師縣民, 太祖下扶餘, 遷其人於京西, 與漢人雜處, 分地耕種. 統和八年, 以諸宮提轄司人戶置. 隸長寧宮, 戶二千.”.

『遼史』 권38 志8 地理志 2 東京道, “遼陽府 顯州奉先軍 上 節度. 本渤海顯德府地. 世宗置, 以奉顯陵. 顯陵者, 東丹人皇王墓地. 人皇王性護讀書, 不喜射獵, 購書數萬卷, 置醫巫閭山絕頂, 築堂曰望海. 山南居海一百三十里. 大同元年, 世宗親護人皇王靈駕歸自汴京. 以人皇王愛醫巫閭山水奇秀, 因葬焉. 山形掩拘六重, 於其中作影殿, 制度宏麗. 州在山東南 遷東京三百戶以實之. 應曆元年, 穆宗葬世宗於顯陵西山, 仍禁樵採. 有十三山, 有沙河. 隸長寧積慶二宮, 兵事屬東京都部署司. 統州三縣三. 奉先縣, 本漢無慮縣, 卽醫巫閭, 幽州鎮山世宗析遼東長樂縣民以爲陵戶, 隸長寧宮. 山東縣本漢望平縣, 穆宗割渤海永豐縣民爲陵戶隸積慶宮. 歸義縣, 初置顯州, 渤海民自來助役, 世宗嘉憫, 因籍其人戶置縣, 隸長寧宮.”.

98) 『遼史』 권4 本紀4 太宗 下 會同四年~九年 참조.

『遼史』 권4 本紀4 太宗 下, “大同元年(947) 夏四月 乙丑, … 皇太弟遣使問軍前史, 上表曰「初以兵二十萬降杜重威張彥澤, 下鎮州. …」”.

발해와의 전쟁에 동원된 거란의 병력은 20만 명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⁹⁹⁾ 따라서 10세기 전반 대발해 전쟁에 동원된 거란의 군사력은 대략 17만 1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10세기 전반 거란의 對渤海 전쟁 군사력

거란	태조		지황후(술물씨)		소계		
騎軍	皮室軍	50,000	屬珊軍	50,000	100,000		
幹魯朶 (宮衛)	算幹魯朶 (弘義宮)	正丁	16,000	蒲速盃 幹魯朶 (長寧宮)	正丁	14,000	30,000
		蕃漢 軍事 [蕃漢 轉丁]	8,000		蕃漢 軍事 [蕃漢 轉丁]	8,400	16,400
		出騎軍	6,000		出騎軍	5,000	11,000
太祖代 복속부족	女直(女眞)	600	X		14,000		
	奚	1,400					
	于骨里	12,000					
합계	94,000		77,400		171,400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10세기 당시 발해와 거란의 군사력은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군사력을 『요사』, 『고려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해보니, 발해는 약 13만 5천 4백 명, 거란은 약 17만 1천 명 정도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들 양국의 군사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욱이 이들 양국의 전쟁이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벌어졌던 이

99) 문운수,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2022, 301쪽, 주90.

유도 이러한 군사력에 기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0세기 전반 발해와 거란의 군사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우선 10세기 전반 북방의 강자로 등장한 거란은 최종목표였던 증원으로의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증원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았던 발해를 우선적으로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전쟁은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다.

발해의 군사 편제는 도성을 지키는 중앙군 10위, 좌·우삼군, 좌·우신책군과 각 府·州 등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발해는 이러한 군사 편제를 바탕으로 10세기 전반 거란과 전쟁을 치렀던 것이었다.

또한 거란의 군사 편제는 어장친군(피실군, 속산군), 알로타(궁위), 대수령부족군, 중부족군으로 구성된 중앙군과 부족군 그리고 오경향병, 변경수병으로 구성된 지방군과 전쟁 시 거란이 속국들에서 군사를 차출하여 구성된 속국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糺軍이라는 군사 집단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란 태조는 발해와 전쟁을 벌일 때는 기동력을 중시하여 기군의 어장친군과 친위부대 알로타군을 주력으로 군대를 편성했을 것이고, 여기에 요련씨의 규군도 발해와의 전쟁에 참전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10세기 발해와 거란의 군사력은 대략 3만 5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당시 이들의 군사력을 『요사』와 『고려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발해는 약 13만 5천 4백 명, 거란은 약

17만 1천 명 정도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 이들의 군사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0세기 전반 발해와 거란은 체계적인 군사 편제를 바탕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을 벌인 것이었다. 특히, 이들 양국의 전쟁이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벌어졌던 것도 비교적 대등한 군사력에 기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23.09.15. 투고 / 2023.12.09. 심사완료 / 2023.12.14. 게재확정)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litary Power of Balhae and Khitan in the Early 10th Century

Moon, Yunsoo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wars between Balhae and Khitan in the first half of the 10th century and tracked the military power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war. In the first half of the 10th century, Khitan invaded Balhae to advance into China and started a war that lasted for more than 20 years.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Balhae consisted of the central army guarding the capital and the local army deployed in th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Therefore, Balhae fought a war with the Khitan in the first half of the 10th century based on such a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Khitan army consisted of a central army, a tribal army, a local army, and an army from a subjugated state. In addition, there was a military group called the “Kyu army” composed of various ethnic groups. However, Great Progenitor Taejo of the Khitan would have organized an army mainly with mounted soldiers and the emperor’s escort units during the war against Balhae.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Kyu army” here also participated in this war.

Next, in the first half of the 10th century, the military power of Balhae and Khitan was about people 35,000 different. A close analysis of their military power at the time based on 『History Of Liao』 and 『His-

tory Of Goryeo』 confirmed that Balhae had about 135,400 people and Khitan had about 171,000 people. These figures show that their military pow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time.

Finally, in the first half of the 10th century, the two countries of Balhae and Khitan organized an army based on such a systematic military organization and fought a war.

In particular, the reason why their war broke out for more than 20 years is thought to be because the military power of the two countries was relatively equal.

□ Keyword

Balhae, Khitan, military organization, central army, local army, military power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帝王韻紀』,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北史』,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資治通鑑』, 『遼史』
『契丹國志』, 『遼東行部志』
『續日本紀』
『陳萬墓誌』

단행본

金渭顯, 『契丹東方經略史研究』,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김진광,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2012.
나영남, 『요·금시대 이민족 지배와 발해인』, 2017.
박시형, 『발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李在成, 『古代 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史, 1996.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2007.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金毓黻, 『渤海國志長編』, 1934(발해사연구회 역, 『신편 발해국지장편』, 신서원, 2008).
王承禮, 『渤海簡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4(송기호 역, 『발해의 역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王晶辰 主編, 『遼寧碑志』, 遼寧仁民出版社, 2002.
李桂芝, 『遼金簡史』, 福建人民出版社, 1996(나영남·조복현 역, 『요·금의 역사』, 신서원, 2014).
張國慶, 『遼代社會史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周阿根 校注, 『遼代墓誌校注』上, 天津古籍出版社, 2022.

鳥山喜一 著, 般木勝馬 編,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1968.

논문

강성봉, 「발해 8위제에 대한 검토」, 『軍史』 79, 2011.

강성봉, 「발해(渤海)-거란(契丹)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韓國史研究』 193, 2021.

권은주, 「靺鞨 7부의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輯, 2009.

권은주, 「渤海와 契丹 境界의 時空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第54輯, 2016.

김기섭, 「발해의 멸망과정과 원인」, 『한국고대사연구』 50, 2008.

金東宇, 「渤海의 地方統治體制 운영과 그 변화」, 『韓國史學報』 제24호, 2006.

김동우, 「발해 도성과 지방통치」, 『高句麗渤海研究』 第58輯, 2017.

김은국, 「渤海滅亡의 原因」, 『高句麗渤海研究』 6, 1999.

류병재, 「거란문자 분석을 통한 거란(契丹) 국명(國名) 연구」, 『白山學報』 119, 2021.

문윤수,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契丹의 軍事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105, 2022.

朴世完, 「遼金時代 糺集團의 編制와 役割」,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4.

白永美, 「韓國 古代의 戶口 編制와 戶等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윤영인,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정복왕조” 거란의 군사력」, 『東洋古典研究』 第85輯, 2021.

- 임상선,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2輯, 2008.
- 임상선, 「渤海人の 契丹 内地로의 강제 遷徙와 居住地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第47輯, 2013.
- 임상선, 「『遼史』 地理志의 韓魯朶州·縣」, 『高句麗渤海研究』 第49輯, 2014.
- 林相先, 「遼代 韓魯朶의 宮主와 그 名稱」, 『東洋史學研究』 第128輯, 2014.
- 전병우, 「遼의 군사제도와 전술」, 『軍史』 第113號, 2019.
- 崔益柱, 「遼代의 宮戶」, 『歷史學報』 제57집, 1973.
- 韓圭哲, 「渤海와 遊牧王朝의 交流」, 『高句麗渤海研究』 34輯, 2009.
- 王德忠·李春燕, 「遼代韓魯朶問題研究綜述」, 『東北史地』, 吉林省社會科學院, 2009-3.
- 劉浦江, 「遼朝國號考釋」, 『歷史研究』, 2001 6期.
- 韓茂莉, 「遼代前中期西拉木倫河流域以及毗鄰地區農業人口探論」, 『社會科學輯刊』, 2001 6期.

